

NTT, 휴대폰전용 수소 이용한 연료 전지 개발

NTT는 휴대전화에 직접 탑재해 구동 가능한, 수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료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전지는 휴대전화를 직접 구동할 수 있는 마이크로 PEFC시스템으로 불리는 연료 전지로, 연료에 수소 가스를 이용하는 타입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교환 가능한 고출력을 실현했다고 NTT는 밝혔다. 또 이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의 시동과 착발신에 성공하였으며, 9시간의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발전부의 면적을 바꾸면 출력이 강화되어 비디오 카메라



나 노트 PC 등 폭넓은 기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마이크로PEFC시스템 유닛은 42×80×13mm의 콤팩트 사이즈로, 처음에는 휴대전화 전용으로 승압 컨버터 등을 추가한 것이었으나 향후 주변 부품의 소형

화 등도 과제라고 동사는 밝혔다. 동사는 2~3년 후를 목표로 기술을 확립할 방침이다.

■ URL : <http://www.ntt.co.jp/news/news05/0502/050222.html>

젠린, 휴대폰전용 보행자 네비게이션 서비스 올 가을 개시

일본의 젠린 및 젠린 데이터 컴은 오는 가을부터 연말을 목표로, 휴대전화전용의 보행자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밝혔다.

설명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젠린 데이터 컴이 휴대전화전용 보행자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전용 보행자 네비게이션은 동사의 카 네비게이션(car navigation)전용 서비스와도 제휴시킬 예정이며, PC전용의 서비스도 예정되어 있다.

이용 가능한 휴대전화는 현재 미정이지만, GPS 기능 휴대전화전용의 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젠린은 지난 16일 기자 설명회를 개최해, 동사의 지리 정보 시스템(GIS)사업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 젠린 이사 영업본부장의 타카다 아키라 이치우지는 "지도 회사로부터 정보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한편 주택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법인전용 ASP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보행자 나비데이터베이스'는 고정밀도 보행자용 네비게이션전용의 지도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지금까지 휴대전화전용 보행자 네비게이션에서는 안내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골목이나 연락 통로, 지하가, 에스컬레이터, 보도교, 공원 출구까지 스태프의 조사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어 종래보다 고정밀의 네비게이션을 가능하다고 동사는 밝혔다. 이용 형태는 GPS 기능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조합해 이용한다.

■ URL : <http://www.zenrin.co.jp/>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 휴대폰 전용 음악 전달 제휴

노키아는 미국의 Loudeye와 휴대전화 사업자 전용으로 제공하는 음악 전달 플랫폼을 제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휴대전화전용 음악 전달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Media Player 관련 기술을 이용해 캐리어 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악곡 검색이나 다운로드, 결제 등 일련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 콘텐츠 관리 기술

에 Windows Media Digital Rights Management 10이 이용되고 있는 것 외에 악곡 데이터의 파일 형식으로서 WMA 형식이 서포트된다고 노키아는 밝혔다.

악곡 다운로드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유저의 PC에도 보존 가능해, 휴대전화와 PC를 접속해 악곡 데이터의 동기화도 포함 수 있다.

또 노키아는 미 매크로 미디어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한 것도 발표했다. 이에따라 노키아 제품의 휴대전화 플랫폼

폼 「Series 60」에 매크로 미디어의 Flash가 탑재될 전망이다.
 ■ URL : <http://www.nokia.com/>

퀄컴과 오픈 웨이브, W-CDMA 시장을 타겟으로 제휴

미국의 퀄컴과 미 오픈 웨이브는 W-CDMA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의해, 오픈 웨이브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전용 브라우저나 메시징 소프트웨어 퀄컴의 칩 세트 「MSM 시리즈」 상에서 동작하도록 BREW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이식된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솔루션에 따라 단말기 개발비 절감이나, 개발 기간 단축을 전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URL : http://www.qualcomm.com/press/releases/2005/050215_qct_openwave.html

NTT 도코모, 동영상 촬영 기능 강화 휴대폰 출시

일본 NTT도코모는 동영상 기능에 중점을 둔 샤프제 FOMA 단말 SH700i'을 2월25일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동영상을 촬영하기 쉽게 디자인된 샤프제 FOMA단말로, 메인 디스플레이는 약2.2인치에 240×320화소, 262, 144색 표시가 가능한 모바일 ASV액정을 채용했다.

서브 디스플레이는 약 0.6인치로, 72×12화소의 흑백 STN 액정이다. 유효 화소수는 126만 화소(기록화 소수123만 화소)의 CCD카메라로 정지화면·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또 동영상 촬영이 쉽게 카메라 기동이나 녹화, 보존까지 일련의 조작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독립 무비 버튼」을 측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화상 전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화소수 11만 화소(기록화 소수10만 화소)의 CMOS

카메라가 메인 디스플레이 상부에 채용되었다.

기능 면에서는 촬영한 동영상 상을 가공·편집을 할 수 있는

‘스피드 레버리토리·무비’와 조작 순서를 조사할 수 있는 ‘추출 기능부서포트북’이 수록되고 있다.

크기는 108×48×28mm(높이 × 폭 × 두께), 무게는 약 122g, 연속 대수 시간은 정지 시에 약370시간, 이동시에 약 320시간이다. 연속 통화 시간은 약130분으로, 화상 전화시는 약80분이다.

■ URL : <http://www.nttdocomo.co.jp/new/contents/05/whatnew0221a.html>



NTT, 접촉만으로 고속 통신할 수 있는 신기술 '레드타크톤' 발표

NTT는 사람의 몸을 전송 경로로 휴대단말 등으로 최대 10 Mbps의 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술 '레드타크톤 (RedTacton)' 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레드타크톤' 은 휴대 단말 등 유저가 몸에 지니고 있는 단말끼리나 단

거리의 기기 간에 사람의 몸을 전송 경로로 접촉만으로 최대 10 Mbps의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신기술이다.

전파나 빛이 아니고, 사람의 몸의 표면 전계를 이용한 이 기술은 송신측의 레드타크톤의 디바이스에서는, 사람의 몸의 표면에 미약한 전계를 발생시킨다. 인체의 표면을 통해서 리시버 측에 도달한 전계는, 미약한 전계의 측정을 행하는 센서 '포토닉 전계 센서' 에 의해 수신,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금속이나 물 등 전기신호가 전해지는 성질의 것(도전



체)의, 유리·벽, 목재 등의 신호가 통과해 버리는 소재(유전체)에서도, 얇으면 신호가 전해지고 있어, 도전체와 유전체가 합쳐진, 의복이나 구두, 차 등으로도 통신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

NTT는 이번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휴대단말과 거리나 시설에 파묻힌 컴퓨터간에서의 One-to-One 서비스, 노트 PC를 테이블에 두면 넷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가 되는 것 같은 대규모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근접 통신기술에서는, Bluetooth나 RFID등이 벌써 제공되지만, 접하는 것만으로는 통신, 전송 매체를 선택하지 않는 점, 10 Mbps의 고속 통신 등의 장점이 있어 이러한 기술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NTT 제 3부문 프로듀스 담당 프로듀서 사카모토 히데키 씨는, 다른 통신과의 간섭에 대해서는, 간섭은 있다고 하면서도, “접촉하는, 매우 근접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게다가 인체への 영향에 대해 사카모토씨는, “전류가 인체를 흐를 것은 없다”라고 했지만, “다만, 휴대전화의 전파와 같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회에서는, 3 종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행해졌다. 첫번째는, 약봉을 만지면 포켓 안의 PDA 단말이 약의 속성 정보나 복용 방법 등을 가이드하는 것을, 2번째는 미술관이나 이벤트 등의 시설을 상정해, 마루에 파묻힌 송수신기가 유저 측의 정보 단말기에 방문한 사람의 연령, 성별, 국적 등에 맞추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시연했다. 비즈니스 신을 상징한 세번째는, 프로젝트에 접속하지 않고, 노트 PC를 테이블에 두는 것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행할 수 있다. 이 데모에서는 테이블에 설치된 송수신기가, 노트 PC와 통신을 행해 케이블 없이 프로젝터에 화면이 투영 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 URL : <http://www.ntt.co.jp/news/news05/0502/050218.html> / <http://www.redtaction.com/>

IDC, 2004년 세계 휴대 출하 대수 6억 6,450만대

미국 IDC는 2004년 제 4/4분기의 세계 휴대전화 출하 대수와 한 해 총출하 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4/4분기 세계 휴대전화 출하 대수는, 전기 대비 18.1%증가, 전년대비 24.0% 증가한 1억 9,430만대로 나타났다.

메이커별 쉐어로는, 1위가 6,610만대로 34.0%의 노키아, 2위가 3,180만대로 16.4%의 모토로라, 3위가 2,110만대로 10.9%의 삼성, 4위가 1,390만대로 7.2%의 LG, 5위가 1,350만대로 6.9%의 시멘스로 나타났다.

또, 2004년 한 해 총 출하 대수는 전년 대비 29.3% 증가한 6억 6,450만대로, 연간 메이커별 쉐어는, 1~3위까지 제 4/4분기와 같이,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 순위가 되었지만, 4위는 시멘스, 5위는 LG가 되고 있다.

4위, 5위의 분쟁이 격렬한 한편, IDC에서는 소니·에릭슨이 다시 5위 이내에 랭크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 URL : http://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2005_01_27_112549

가트너 제팬, 2004년 일본 개인PC시장 4년 연속 축소

가트너 제팬은 지난 2월 23일, 2004년 일본내 PC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하 대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18만대이며, 출하 금액은 동기 대비 3.7% 감소한 1조 7601억엔으로 나타났다. 개인 PC 시장의

회복이 늦어 동사의 3월 예측(총 7.6%증가)을 밑돌았다.

개인 PC시장의 출하 대수는, 동 4.0% 감소로 4년 연속 감소가 되었다. 박막 TV나 HDD 레코더 등의 디지털 가전과의 경합, 교체 연수의 장기화, 잠재 유저의 개척 부진에

가세해 일부 벤더의 전략적 출하가 원인이라고 가트너 제팬은 밝혔다.

법인 시장은 기업의 교체 수요를 배경으로, 출하 대수는 동 10.2% 증가한 2 자리수 성장으로, 2년 연속의 증가세를 보였다.

벤더별 웨어는 NEC(19.9%), 후지쯔(19.0%), 델(10.2%), 토시바(8.3%), 일본 IBM(6.8%)의 순서이다.

전년 4위의 소니는 6위에 전락했으며, 동 8위의 일본 휴렛 팩커드는 7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 URL : <http://www.gartner.co.jp/>

일 노무라연구소, 기업의 IT투자 약간 향상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NRI)는 지난 2월 21일 '유저 기업의 IT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상장기업 혹은 상당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회수 샘플 수는 441건이다.

보고서에서는 2005년도의 IT투자 규모를 전년보다 증가한다고 대답한 기업은 약 4할로 나타나, 2003년도 조사 이후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IT투자는 약간 향상되는 경향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이 향후 중시하는 IT의 활용 목적은, 2003년도 조사에서는 '업무 효율화'와 '정보의 활용'을 드는 기업이 다수였던 것 대해, 2004년도에는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30.4%)이나 '경영관리 기능 강화'(27.4%), '사업·서비스 창조'(23.9%)을 드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NRI는 IT투자를 단순한 업무 효율의 향상이 아

닌, 기업을 둘러싸는 사업 환경의 변화에의 대응이나 경영 전략에 묶어 파악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관리나 사업 개발 분야에서 IT투자의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투자 목적을 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많았다.

조사에서는 IT투자 전반에서는 적당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기업이 약 6할이었는데 대해, '사업·서비스 창조'나 '경영관리 기능 강화'의 달성 상황은 '나쁘다'라고 회답한 기업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NRI는 이러한 분야에서도 IT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가기 위해 CIO(IT통괄 책임자)를 핵심에 놓고 경영자나 사업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IT에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의사결정 구조의 변혁이나 인재육성도 불가결하다고 하고 있다.

■ URL : <http://www.nri.co.jp/news/2005/050221.html>

2009년 휴대전화 9.3%가 스마트폰

조사회사 Jupitermedia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의 판매는 2009년까지 연 28%의 페이스로 증가해 2009년에는 휴대전화 판매의 9.3%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통 휴대전화나 미디어 플레이어, 카메라, 게임기 등의 전용 단말을 대신할 것은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전화에 가세해 부가적인 기능을 갖춘 단말은, 기능 면의 제약이나 배터리 지속 시간에 영향이 미치는 일도 있지만, 그런데도 가지고 다니는 단말은 1대가 좋다고 대답한 컨슈머(consumer)는 62%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는 74%가 휴대단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기능이라고 회답했다.

컨슈머(consumer)는 최대 3대까지 단말을 가지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통합형 단말을 1대 가지고 다니는 편을 좋아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중요한 것은, 컨슈머(consumer)에게 있어 어느 기능이 중요한가를 이해해, 가장 중요한 전화기능으로 타협이 없게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컴퓨터 리서치 부사장 마이클·가텐버그씨는 지적했다.

■ URL : <http://www.jupitermedia.com/corporate/releases/05.02.17-newjupresearch.html>